



취약 계층과 지역 포교에 앞장서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조계종 전법단이 지난 4월30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출범식을 맞아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과 전법지원단 재가 불자들이 파 이팅을 하는 모습. 김형주 기자 coo1jo@ibulgyo.com

“전국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 전한다”

취약지역 지원... ‘조계종 전법단’ 출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조계종 전법단(총재 혜총스님, 조

계종 포교원장) 출범식이 열린 지난 4월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울려 퍼졌다. 대웅전을 가득 채운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 2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전법의 나설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다. 포교가 취약한 분야와 지역에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

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서원이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법단 출범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전법단은 불법에 목말라하는 대중들과 직접 만나는 길벗이 되고 불국토로 안내하는 인레자가 될 것”이라며 “종단 대표자로서 당연한 포교 현장에서 전법활동에 임하는 전법단 구성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출범식을 통해 “부처님 정법이 오늘까지 중단없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2500여 년 유구한 시간동안 묵묵히 전법의 길을 떠난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포교 활동이 취약한 각 분야와 각 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전법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층 및 직장직능, 포교 소외지역

등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과 포교 신도단체 재가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전법단은 계층포교와 직장직능 포교 활성화를 큰 틀로 삼아 활동을 펼치게 되며, 향후 지도법사 스님들을 50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분사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단을 개설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법단을 꾸려 나갈 방침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문제 제기 방식 미성숙” “개괄적 이해...소통 부족”

‘봉은사 직영관련 토론회’ 5시간 넘겨

지난 3월11일 중앙종회에서 직영사찰 지정이후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봉은사 문제가 토론회를 통해 해결력을 모색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0개 불교단체가 주관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4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태용 우리선우 이사장(건국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인도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 등 9명의 토론자가 해법을 제시했다. 1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2부 ‘봉은사 문제 무엇을 과제로 남길 것인가’로 나누어 5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총무부장 영담스님 등 총무원 토론자들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종회에서 적법절차로 의해 진행된

것”으로 “종단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됐으며,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명진스님 등 봉은사 토론회자들은 “아무런 소통과 연락도 없이 무리해서 직영을 결정한 것은 외압이 아니면 안된다”면서 “직영사찰 지정 이유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법스님을 비롯한 불교단체 토론회자들은 “봉은사 직영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총무원은 직영사찰을 지정하면서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봉은사의 문제 제기 방식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종단 현안에 대해 대중공의를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종단 대의기구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중앙종회 임정을 도의시키고 진행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수·염태규 기자

종단 첫 창작찬불가 제작

문화부, 11월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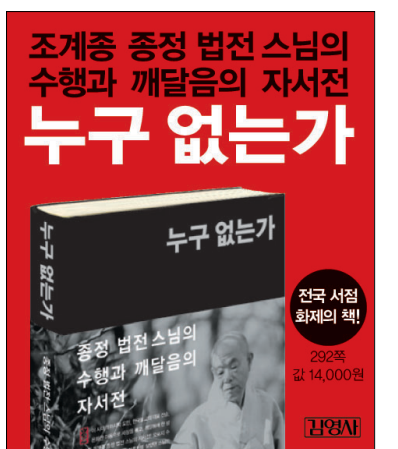
창작찬불가가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효탄스님)는 ‘2010 신작찬불가 합창곡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4월21일 밝혔다. 이번엔 발행된 합창곡집에는 모두 20곡의 새로운 찬불가의 악보가 수록됐다.

문화부가 발표한 찬불가의 특징은 이해하기 쉬운 노랫말로 대변된다. 기존 찬불가들이 무조건적인 찬탄이나 어려운 내용으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근하게 다가서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악보집 제작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찬불가 노랫말의 효시인 운문스님을 비롯해, 현대불교문인협회장 수완스님 등 불교문학계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도종환 씨 등 시인들을

작사가로 대거 초빙했다. 선율 또한 찬불가로 명망이 높은 작곡가들을 위촉해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꾸몄다.

신작찬불가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2010 불교합창페스티벌’에서 정식으로 시연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천안함 46용사여! 극락왕생 하소서’

4면

“불교, 포괄적 이해 필요하다”

교육원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편안’ 공청회

조계종 교육원이 불교의 종합적 이해에 중점을 둔 승가대학(강원) 교과과정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등 기본교육기관 전현직 교직원 스님 중심으로 구성된 지정토론자들은 개편안에 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국강원교직원연합회가 공청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 꾸준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승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조계종 교육원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및 포교분과위원회 공동 주최로 지난 4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교육원이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현대화 한글화 교재를 중심으로 한 교육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禪) 계율 불교사 및 인문교양 포괄 △방학 중 계절학기 활용을 통한 다양한 학습 위주의 교과 개설 △교육평가를 통한 학습동기 유발 등이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기초연설에

서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수행자를 양성하려는 사회와 소통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한편 전국강원교직원연합회에 소속된 80여 명의 스님들은 공청회 직전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장 법광스님(선운사승가대학장)은 성명서에서 “학인 양성 방법에 대해 다른 장점을 가진 전통강원에서까지 전통 교과과정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 방식을 강요한다면 교육백년대계를 충족으로 처리하는 세간의 잘못을 따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개편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공청회는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장영섭 기자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 부처님의 자비상과 나눔을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는 작지만 큰 희망이 되어 포교에 밑거름이 되고자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0. 5. 16(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
- 장소 : 궁플란트치과(서울 조계사 옆) 내부 및 건물 앞
- 문의 : (02)722-2870 궁플란트치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치과전문간호사, 조무사, 일반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GungPlant.co.kr을 참조바랍니다.

불교신문·궁플란트치과

통속위원회 추천상품

전통의 우리등이며 관리하기도 편리한

전통 팔각등을 답시다.

팔각접등

고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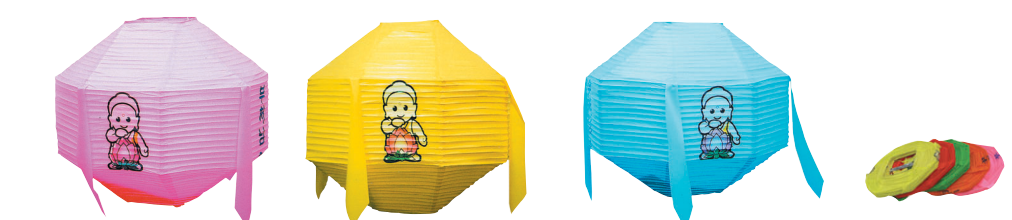
원터치로 한번에 쉽게 펴지고 접혀짐
고급스런 디자인, 보관용이



팔각주름등

보급형

아름다운 전통미를 재현
특허등록원, 의장등록원, 중국특허등록원



팔각접등



팔각주름등

연꽃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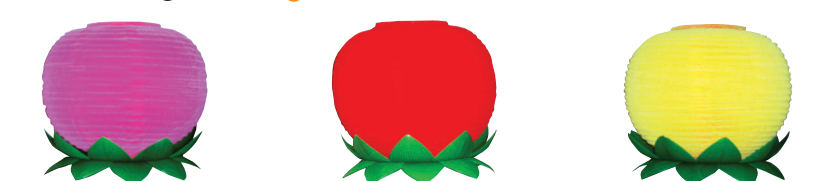
중국 특허 등록원



한글홈페이지 : www.연등.kr / www.Deung.com
수년간의 노력과 염원속에 탄생한 등입니다.

연꽃등 고급형

최고급 우단을 소재로 한 신개념의 독창적인 연꽃등



연꽃등 보급형

비단을 소재로 한 심플함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연꽃등



연꽃등은 외부환경(비바람, 눈보라 등) 악천후의 영향을 거의 안받으면서 사시사철 환하게 비추어주는 시들지 않는 연꽃등이며, 새로운 개념의 독창적인 등입니다.

■ 주요 생산품목 : 팔각접등, 팔각주름등, 연꽃등, 청사초종등, 만월등, 전선, 특수등 주문 전문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회사는 국내 최대의 등제작 공장이며 등관련 최다 특허 등록 보유업체입니다.

문의처 : ☎ 우림산업 TEL 031 · 456-4848, 462-4848, 462-4849 / FAX 031 · 462 · 4850